

더 이상의 확산은 그만!!!

- 전국 집유장 항시 차단방역 -



▲ 집유장 입구를 통과하는 집유차량이 소독을 거치고 있다



▲ 하차 전후 운전석 주변과 개인소독에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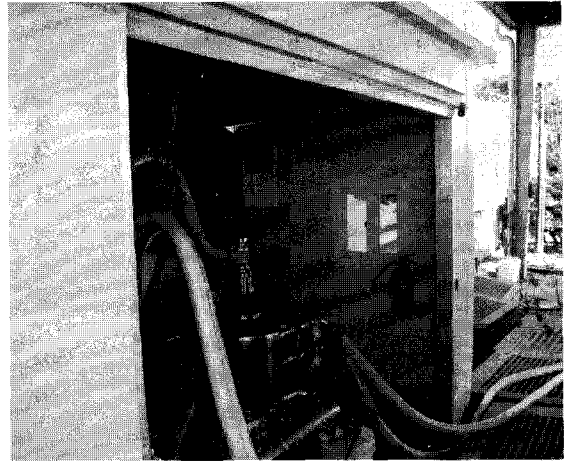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잇달아 확산되는 구제역사태에 어디든 긴장속 분주히 구제역 차단방역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곳곳의 방역인원들이 뽀얀 입김 내쉬며 방역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에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역력하다.

지난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17개업체 24개 집유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방역실태 추가점검에서 협회와 낙농진흥회의 직원들이 찾은 경인지역 내 집유장 방역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미 상당 두수를 살처분해서 평상시보다 집유차량의 운행이 줄어든 집유장 안에는 황량한 기운 또한 감돌 수밖에 없었다.

점검은 출입차량, 출입자소독, 집유장 시설, 기타 부문 별로 나뉘어 각기 세부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그중 비교적 비중있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집유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이와 더불어 유입되는 인원 및 물자에 대한 방역일 것이다. 집유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차량들의 내외부 소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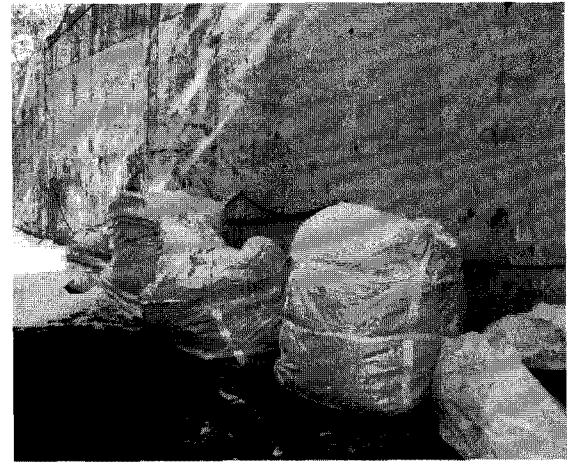
▲ 집유차량에는 여러 종의 소독기를 비치하고 있다



▲ 집유장 내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우유를 이송 중이다



▲ 집유장 방역실태를 점검 중인 모습



▲ 작업 후 1회용 방역복을 폐기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소독장비의 구비, 개인의 소독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는 한편, 방역을 위한 집유장 내 시설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수시로 휴대용 소독제로 자가소독을 하는 한편, 시설 내부의 이동경로마다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거치는 집유장 근무자들이나, 집유차량에서 하차하는 기사들의 모습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화된 차단방역의 자세와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다.

전체 점검항목에 따라 살펴볼 때 대체로 차단방역이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관계자 외 출입에 대한 통제나 부득이 출입시 개인별 소독관리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겠고 무인 차량방역 시설의 센서가 항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관리와 더불어 기온이 급감하는 날씨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일 전국 집유장 및 유가공장의 방역실태를 보고 받고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하여 미비사항을 개선조치 시키고 있다. ☺